

art
IN CULTURE



KOREAN DIASPORA

EMERGING ARTIST GHO NAK BEOM

SPECIAL FEATURE KOREAN DIASPORA

'Diaspora' (dispersion, separation) is a term which means the voluntary or forced relocation of the citizens of Third World to First World. Or, put another way, it means the relocation of the citizens of countries with small population to countries with large population.

Such diaspora has been emerging as a discourse of the modern society and culture. In the era of total globalization, or complex culture ideology, and in the postmodern society, diaspora has been encountering a new state of affairs, together with the problems of ethnic group mixture and of national identity.

Modern Korea, too, has been appearing as a history of diaspora. In 140 years of thick and diverse traces, which have been continued with national sufferings and the dream of globalization, 5.6 million Koreans have been living in 140 countries as the protagonists of diaspora.

How has diaspora been carried out within Korea's history, culture, and art? How should it be received and responded to?

Works of art by Korean painters living in the major countries have been organized as a pictorial. The real state of affairs and the meanings of Korean diaspora art, together with its relationship to our art, are inspected. The exhibition planning of Kwangju Biennale, which presents yet another viewpoint on diaspora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esearch on diaspora in Korea's ordinary history have been totally viewed in this special feature.

INTERVIEW JUNG, KU-HO

In 2003, in the center of Insa-dong, an industrial arts specializing shop, of the size of 1,500 pyong, opens. The motivation-filled resolution by Ssamzi, who had persistently invested in art, was sufficient for getting the urgent attention of not only the industrial arts circles but also the art circles. Ssamzi's hidden card is Jung, Ku-ho. The charisma possessed by Jung, Ku-ho, who had already led the fads of clothes, interior design, and life, makes us have an expectation for a rosy future of the 'Ssamzi industrial arts alley'. He shows a variety of ranges of movements, so diverse that they cannot be put together into one. We listened to the vision held by him, who is both a CEO who will lead Ssamzi and also a creative artist.

faces of the people he knows well.

Jin-sang Yoo defines such works of art by Kho that are conveyed through captured colors "a process of continuously capturing time through images borrowing Bergson's words. And, he explains it through the concept of 'intimacy', with the images being logical and self-sufficient, and the concept of 'difference in reflection', with the images being variable.

YOUNG ARTIST

Kim, Nam-pyo is the representative of an associated creative group called 'Mak', in which five young artists haven't gotten together. At specific intervals wherein traces of individual lives are soaked, they show the 'place' and the 'time' soaked there on the microscopic level. Sul, Seong-sun cuts and pieces of wood and paints and colors images brought forth from everyday life. Such pieces of wood can be one independent work of art and also collected lump. Lyn L wenstein is a British-born woman artist. She speaks of the social 'gap' of the individuals existing under the political powers and the incapable media of the globalized society in the form of demonstrations that take place on the streets. We took a look at the lives of and the world of works of art of the three young artists.

INTERVIEW WITH WORLD CURATOR TOM ECCLES

Korea's alternative spaces have been appearing since 1999. Alternative spaces were intended to overcome the blind spots of ordinary art galleries which had sought only commerciality, and art galleries, which had sought only the large scale artists. However, these only have experimentally and cannot escape from their inferiority in breathing together with the public art in their management methods. However, through innovative management methods, the Public Art Fund has been calling in audiences, yet again, to an exhibition spaces. By examining Curator Tom Eccles' management mind on successful case illustrations, we get to think about the operational policies of non-profit art groups.

KIM, EUI-KYOUNG'S CULTURE TAPESTRY

We began a new culture column. From extremely ordinary subject matters

Special Feature

Korean Diaspora

디아스포라(분산, 이산)는 제네랄 디아스포라(세계 각국에 분포한 민족 집단)와 현대 사회 문화의 담론으로 비호의적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근방에서 세계에 560만 명의 한국인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해외에서 살고,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의 형성을

기획보 _ 한국미술의 디아스포라
세계 미술 속의 디아스포라
회관을 돌아 '저기'를 보자
2002 광주비엔날레 '저기'를 보자
서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DIASPORA

디아스포라(분산, 이산)는 제3세계 국민들의 제1세계로의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이주, 소수자 국가 국민의 다수자 국가로의 이동을 뜻하는 말이다. 이 디아스포라가 현대 사회 문화의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구화 혹은 복합문화주의 시대, 포스트모더니티 사회에서 디아스포라는 문화 혼성, 민족 정체성의 문체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근현대와 한국도 디아스포라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민족 수난, 세계화의 품 등으로 이어지는 140년의 꿈과 다양한 궤적 속에서 145개국에 560만 명의 한국인이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술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주요 국가에 살고 있는 한인 화가들의 작품을 확보로 구성, 한국 디아스포라 미술의 실상과 의미 및 우리미술과의 관련성을 점검하고,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의 관점을 제시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획, 한국 일반사회에서의 디아스포라 연구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특전을 꾸렸다.

1 회보 한국미술의 디아스포라 우즈베키스탄·중국·일본·유럽·미국
2 회보 미술 속의 디아스포라, 어떻게 볼 것인가·편집부
3 회보 물어 저기 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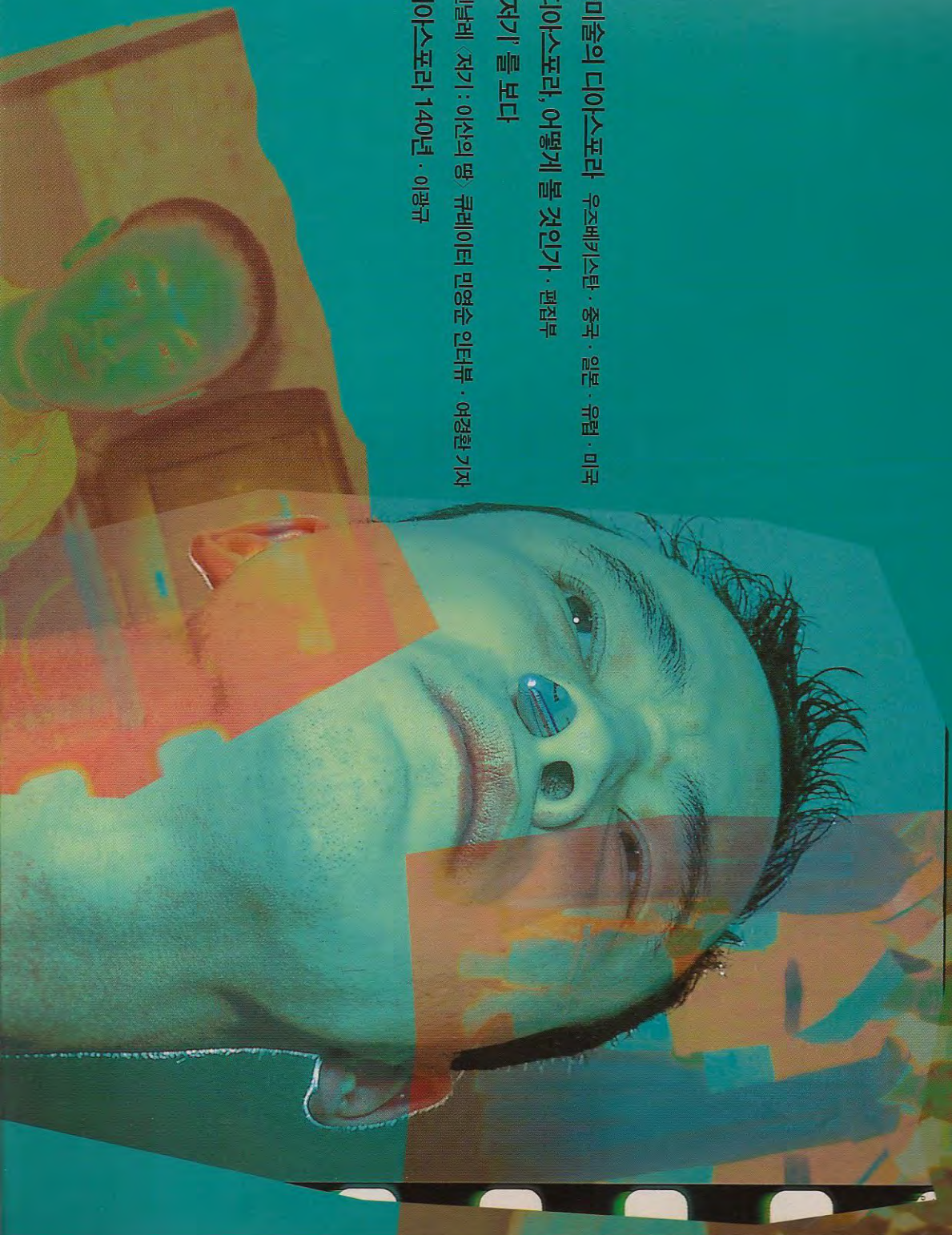
2002 광주비엔날레 (작가: 이산의 땅) 큐레이터 민영순 인터뷰 · 여경환 기자
4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140년 · 이필규



디자이너(뿐만, 아산)는 제3세계 국민들의 제3세계로의 저벌적 혹은 강제적 이주, 소수자 국가 국민의 다수자 국가로의 이동을 뜻하는 말이다. 이디아스포라가 현대 사회 문화의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구화 혹은 복합문화주의 시대, 포스트모더니티 사회에서 디아스포라는 문화 한성,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근현대의 한국도 디아스포라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민족 수난, 세계화의 꿈 등으로 이어지는 140년의 굵고 다양한 궤적 속에서 145 세대에 600만 명의 한국인이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술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주요 국가에 살고 있는 한인 화가들의 작품을 화보로 구성, 한국 디아스포라 미술의 실상과 의미 및 우리미술과의 관련성을 점검하고,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의 관점을 제시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획, 한국 일본사에서의 디아스포라 연구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특집을 꾸렸다.

기획자 **최보** _ 한국미술의 디아스포라 우즈베키스탄 · 중국 · 일본 · 유럽 · 미국
 미술 속의 디아스포라, 어떻게 볼 것인가 · 편집부
 이 눈을 들어 '저기' 를 보다

2002광주비엔날레 <저기 : 아산의 땅> 큐레이터 민영순 인터뷰 · 여경환 기자
 이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140년 · 이광규



우즈베키스탄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연해주 지방으로 한정되었으나, 스탈린이 단행한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그 이후 기나긴 단절의 벽을 깨고 고려인(카레이스키) 사회의 실상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다. 개방 물결을 타고 우즈베키스탄의 니콜라이 박(본명 박성룡)과 신순남 등 교포화기들의 작품전이 국내에서 열렸다. 구 소련 사회에서 정성금 화가로 명성을 누렸던 이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존중하고 고수하면서도 자유로운 감성의 구현에서도 높은 예술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들은 민족 수난의 아픔과 고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화폭에 옮겼다. 페테스부르크 미술계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던 변월룡 등의 1세대 화가들이나 2, 3세대 작가들의 활동상은 아직 온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위· 니콜라이 박, 인물화가, 캔버스에 유채

77.3 × 116.6cm, 1991

이탈레 원형(原形)으로 인상을 살렸던 그의 무너져 버린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동화적인 단락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다.

경제이주 정책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그 이후 기나긴 단절의 벽을 깨고 고려인(카라이스키) 사회의 실상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다. 개방 물결을 타고 우즈베키스탄의 니콜라이 박(본명 박성룡)과 신순남 등 고포회기자들의 작품전이 국내에서 열렸다. 구 소련 사회에서 정상급 회가로 명성을 누렸던 이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존중하고 고수하면서도 자유로운 감성의 구현에서도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민족 수난의 아픔과 고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화폭에 옮겼다. 페테스부르그 미술계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던 변월룡 등의 1세대 회가들이나 2, 3세대 작가들의 활동상은 아직 온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위· 니콜라이 박 〈인중봉기〉 캔버스에 유채

77.3×116cm 1991

아릴 때 원동(運動)으로 이주해 살았던 그가 유년시절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동학혁명 심화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다.

아래 왼쪽·〈대학생 엘미라〉 종이에 파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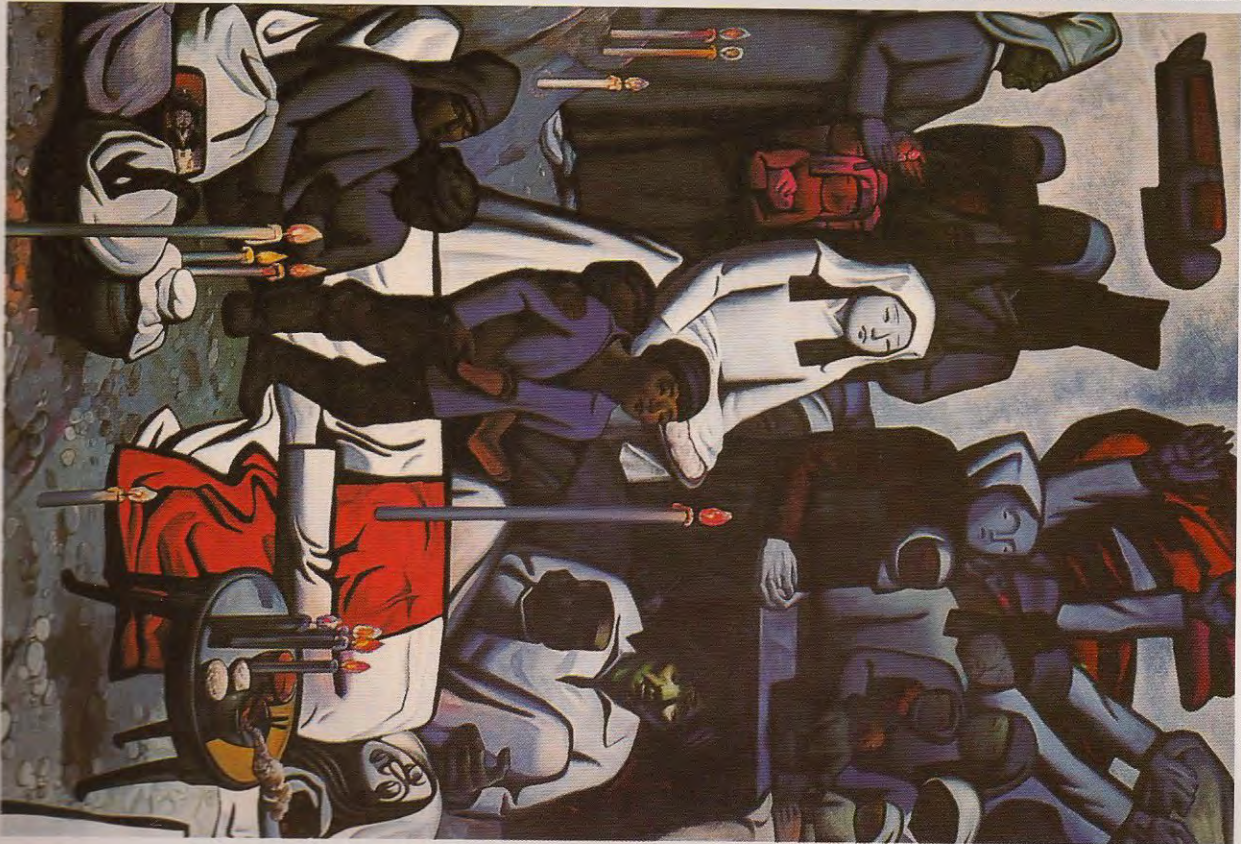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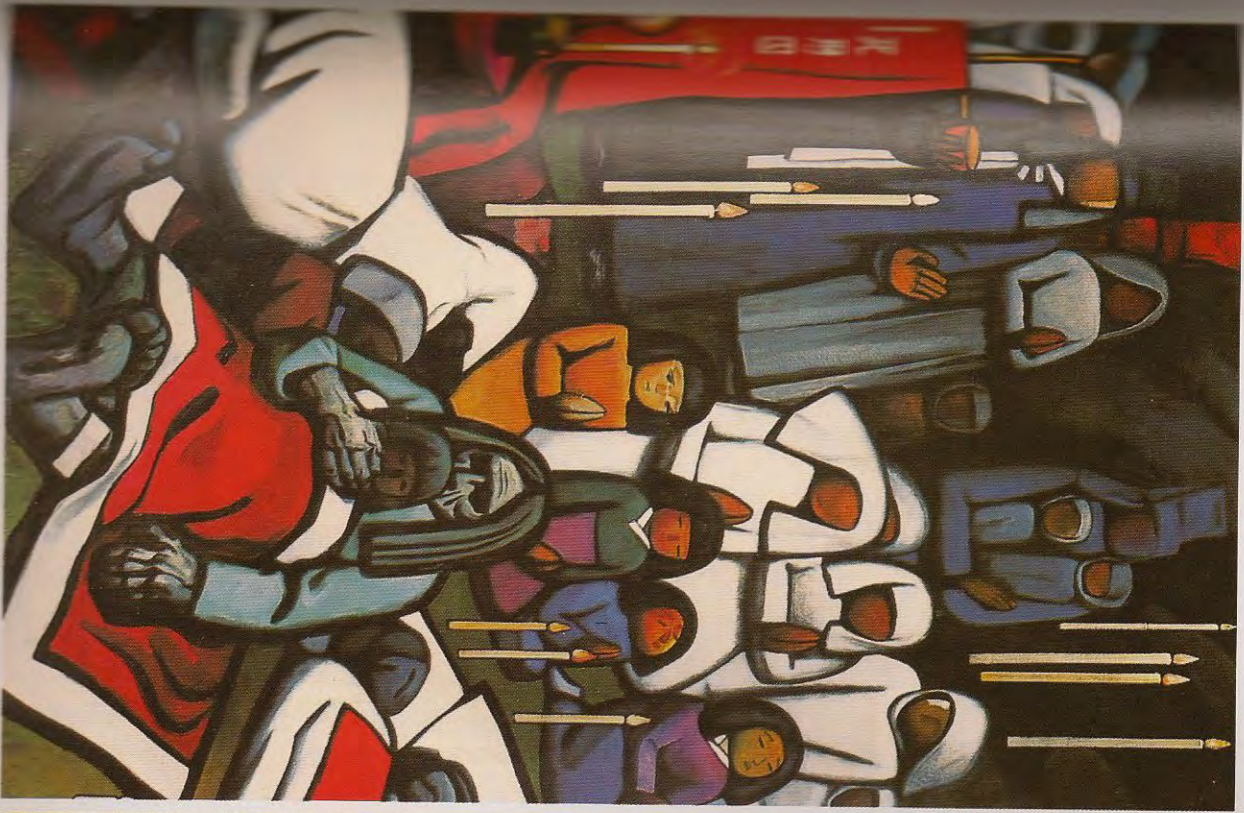
52.7×37.8cm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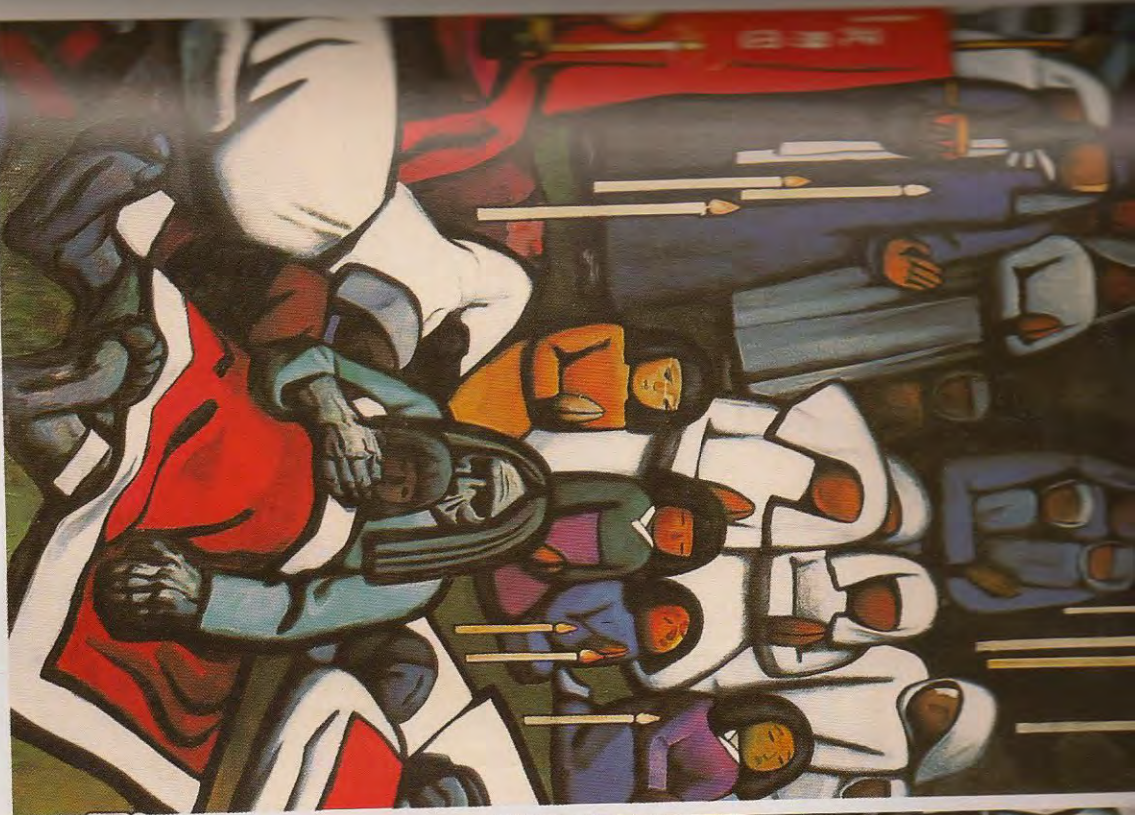
니콜라이 박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엄격한 훈련을 받아 특히 인물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공훈예술가 칭호와 박사 학위의 높은 위치에 올랐다. 1984년 예술전당 회가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1985년부터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고려인 처녀〉 캔버스에 유채

76.5×78.5cm 1991







왼쪽 · 신준남 <진혼제·이별의 촛불, 붉은 무덤>
 캔버스에 유채 300×440cm(부본) 1990
 오른쪽 · <진혼제·이별의 촛불, 붉은 무덤> 캔버스에
 유채 300×440cm(부본) 1990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신준남의 작품전.
 그는 중앙아시아 한민 강제 이주사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비극적 왜곡과 비극적 구도로 담어낸 장대한
 연적이었다. 질병과 기아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주검들
 골간과 신체를 일고 단장과 촛불 앞에서 오열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절망... 그 어떤 역사의 증언이져
 처절한 죽음 앞에 버치는 진혼곡이다.

Chi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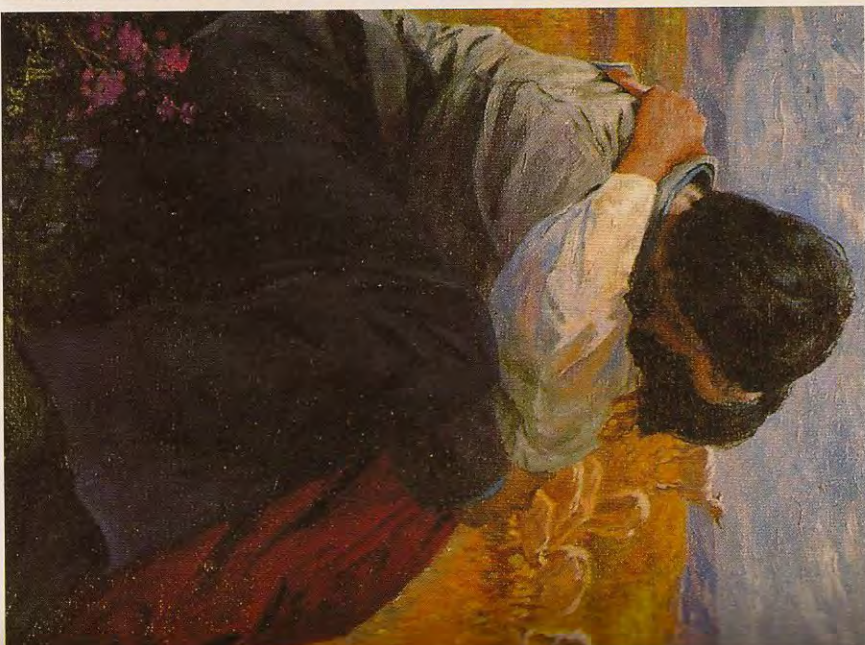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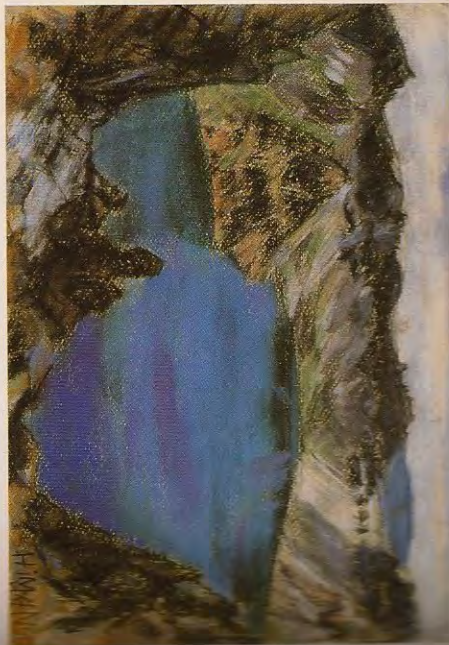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약 200만 명. 특히 연변에서는 1949년 조선족자치주를 건립, 소수민족의 자주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한남연 신용검 등 걸출한 화가를 배출했으며, 치치주 건립 이후 1957년 연변예술학교를 설립, 석희만 임무웅 인광웅 정명룡 등이 후진을 길러왔다. 문화대혁명(1966~76) 기간 동안 민족 역량을 억압받는 고난의 임혹기를 겪었지만, 이후에는 중국 미술과 러시아 비평적 리얼리즘이 접목된 외래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민족 전통을 면면히 이어가는 조선족 특유의 미술세계가 전개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개방 물결에 발맞추어 조선족 중진 원로화가들의 국내 나들이가 러시를 이루었다. 87년 석희만을 시작으로 89년에는 임천 정흥을이, 90년에는 김영호 정동수 김문무 이호근 이광춘 전철승이 잇달아 개인전을 열었다. 92년 한중 국교 수교 이후 조선족 미술계와의 교류는 더욱 자유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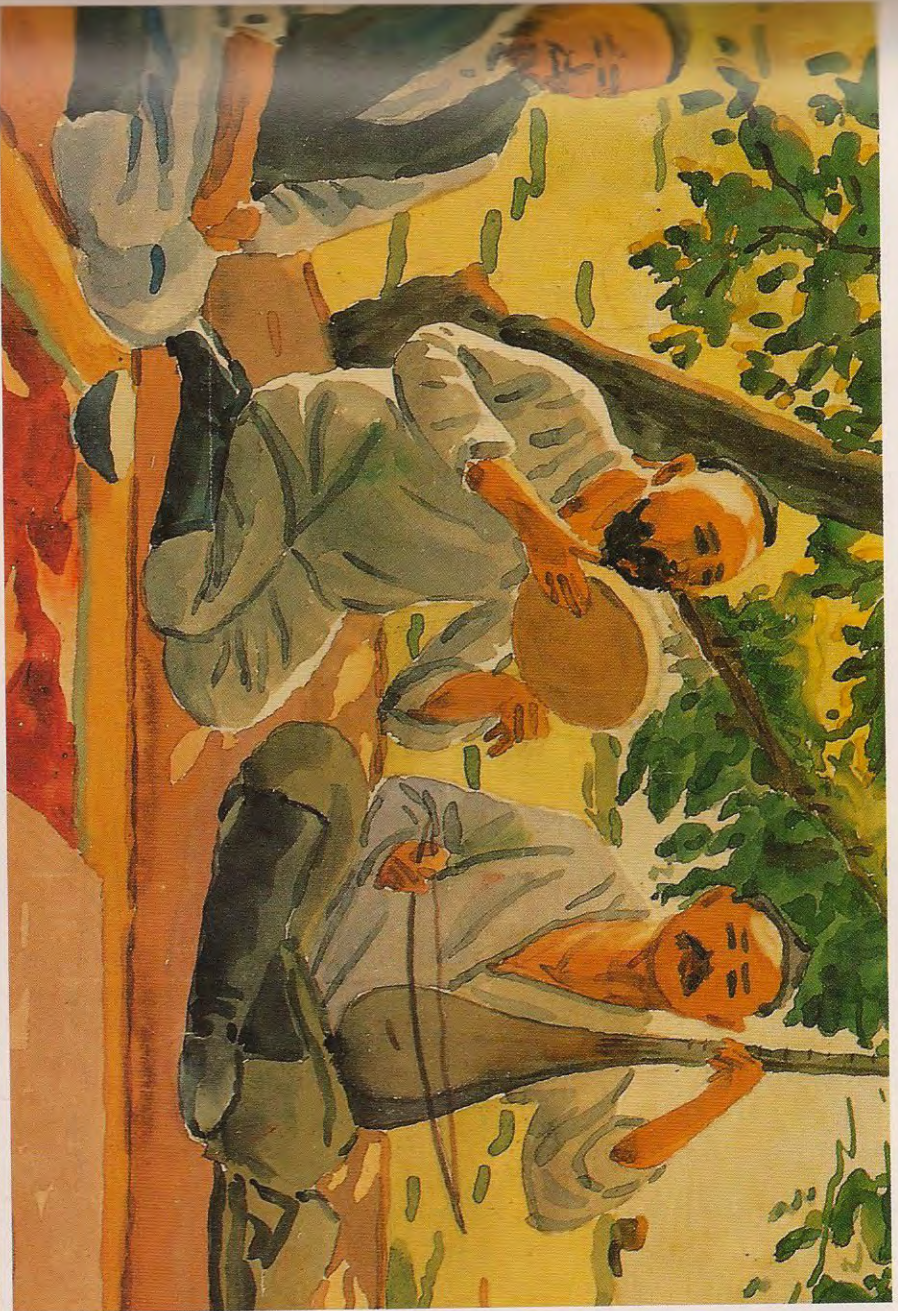
정동수, 《산경도(의 양사)》, 2004년, 유채화, 100x100cm

정동수, 《산경도(의 양사)》, 2004년, 유채화, 100x100cm

에는 김영호 정동수 김문부 이호근 이병훈 전형송이 잇달아 개인전을 열었다. 92년 현충 국교 수교 이후 조선족 미술계의 외 교류는 더욱 자유로워졌다.



1949년 조선족자치주를 건립, 소수민족 인 신용겸 등 걸출한 화가를 배출했으며 인광웅, 정명룡 등이 후진을 길러낸 의 임흥기를 겪었지만, 이후에는 중국 인민서도 민족 전통을 면면히 이어가는 의 개방 물결에 발맞추어 조선족 청년 적으로 89년에는 임천 장흥을 이, 90년 을 열었다. 92년 한중 국교 수교 이후



김 한연 <삼코르드의 역사> 중이매 수채

1946년에 <강가의 예배> 캔버스에 유채 50×65cm 1946-1950년 예술인양 화가협회승관에서 한남인 유작인지 불한다. 한남인은 상해미술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프랑스 문학을 다녔으며, 졸업 후에는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의식 있는 화가였다. 또한 삼코르드 고대 벽화에 대한 연구는 많은 묘사 작업을 남겼다. 40대에 비평가 수채시각으로 재입을 떠난 비문의 전세화가였다.

김한연이진
 원화 : 세화인 <삼코르드의 역사> 중이매 유채
 50×65cm 1946





백, 한남연 <실크로드의 역사> 종이에 수채

11.5×47cm 1946
이때, <강가의 예배> 캔버스에 유채 50×65cm 1946
1993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한남연 유작전이
열렸다. 한남연은 상해미술학교를 무덤으로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으며, 졸업 후에는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의식 있는 화가였다. 또한 실크로드 고대
백화에 심취하여 수많은 모사 작업을 남겼다. 49세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화가였다.

왼쪽페이지
왼쪽 · 석화만 <신의 딸> 종이에 퍼스텔

55×40.2cm 1979

오른쪽 위 · <백두산 천지> 종이에 퍼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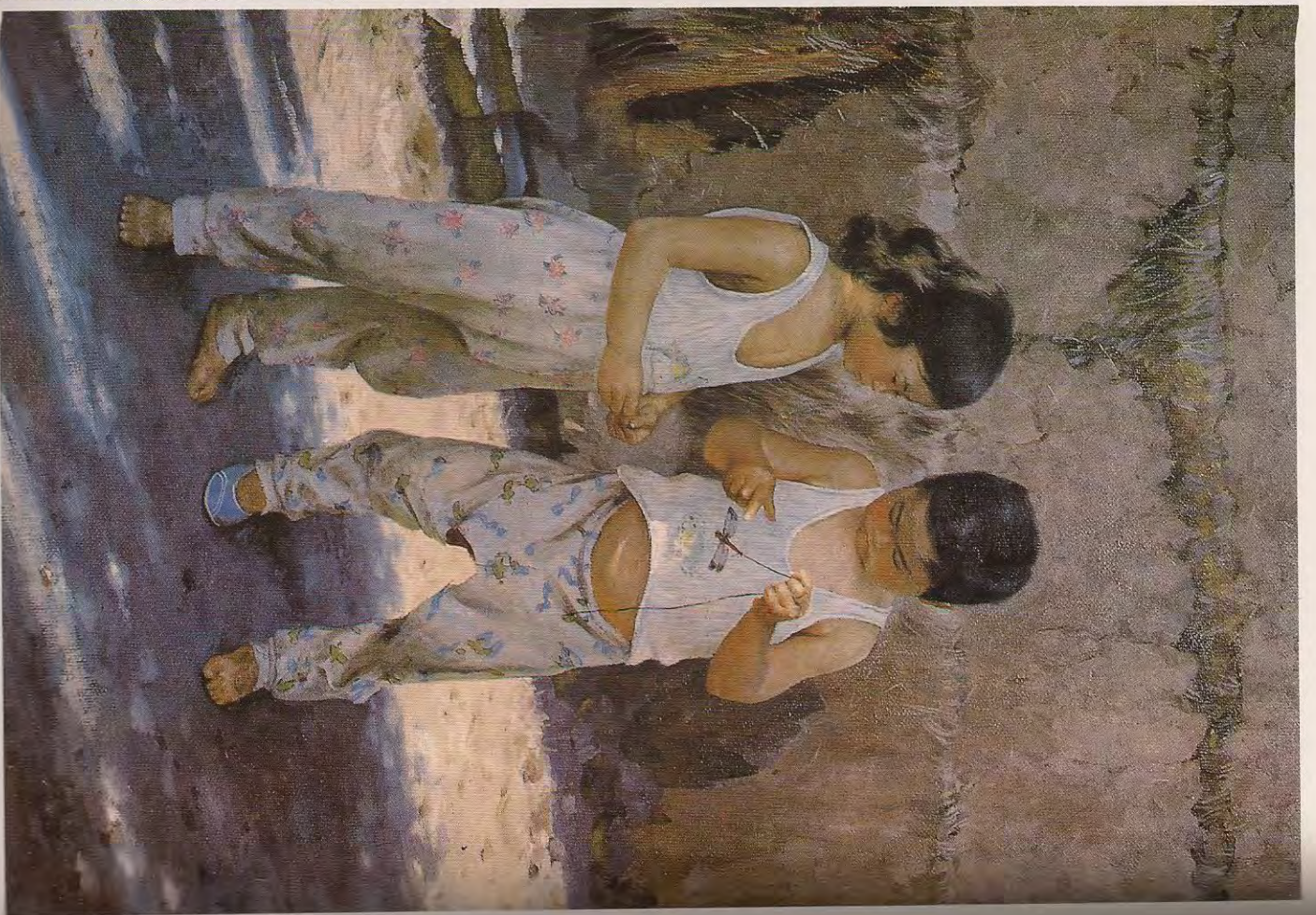
27.2×39.7cm 1980

87년 서울 그로리치 회관에서 열린 석화만 개인전에
출품한 작품. 그는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앤벤 조선족
미술계를 이끌은 대부.

오른쪽 아래 · 임무웅 <일만홍> 캔버스에 유채
화기이지 이문기, 조선족 중에서 처음으로 미술이론서를
출간했다. <미술 기초> <생활의 진실과 예술의 진실> 등의
저서가 있다. 1993년 서울에서 <중국 조선민족
미술사>(사과와 인어)를 펴냈다.



제일 한국인 사회는 포퓰러
 대중로기 대립의 축소판
 이라 할 수 있는 문학과
 문단이 존속해 왔다. 이러
 이대올로기적으로 자유로
 피여준 등의 작가들은 문
 인, 조종현 미술의 무리
 장립된 제일본조선문리
 형 문예동)에서 활약한
 표세종 등은 '금기'의 작가
 다. 대체로 1세대 작가들
 과 친애한 정치 상황, 문
 한 갈등과 부조리, 초자연
 정 동을 구상 양식으로
 세대 작가들은 일본 미
 흡수돼 모더니즘 미술의
 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
 전후로 남북의 사정 차이
 먼저 문예동에서 벗어나
 을 견이기는 작가들이
 다른 이산지역과 미
 대 작가들로 김수복, 유
 외 별개로 동시대 미
 하는 작가들이 수





원폭 위 · 이남일 《모자의 정》 캔버스에 유채
1984년 전국 조선족 미술전람회 1등상 수상
원폭 아래 · 조규원 《뜨거운 마음》 캔버스에 유채 1973
일찌기 중국 인민 해방군에 입대, 군인으로 창작 생활을
펼쳤다. 전투 주제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
오른쪽 · 이호근 《여름 등산》 캔버스에 유채
1986년 전국 조선족 미술전람회 1등상 수상

뿐만이 아니라 했다. 1970년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로운
박태준 등의 작가들은 일련의
1970년대, 조종연 미술의 뿌리로 1970
취업된 제일본조선문학예술기
형 문예동맹)에서 활약했던 최
표세종 등은 '금기'의 작가로 부
다. 대체로 1세대 작가들은 일
과 친애한 정치 상황, 교포 지
한 갈등과 부조리, 조국의 통일
현실을 구상 양식으로 1970년
세대 작가들은 일본 미술의 영
흡수돼 모더니즘 미술의 다양
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1970
전후로 남북의 사상 대립이
면서 문예동맹에서 벗어나 독자
를 견여가는 작가들이 점차
다른 이산지역과 미진기회
대 작가들로 갈수록 민족 정체
외 별개로 동시대 미술의 흐름
하는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위 · 전희환 《전정의 나옴》 캔버스에 유채
59 × 94cm 1960
전후에 전희환은 한국의 역사적 지변
작품도 많이 남겼다. 60년대 이후 1970
유거 백제관을 비롯한 해외로 유
아래 · 송영욱 《절규》 캔버스에 유채
이방인으로서는 남과 북 그 어떤 차이
재일교포의 특수한 삶을 절구(切
하모시마 원복 문제, 원수(元寇)의
주제를 다룬 작품을 남겼다

남북이론

새일 한국인 사회는 오랫동안 남북 이 대를로기 대립의 축소판 혹은 대리전 이라 할 수 있는 민단과 조총련의 제2 부단이 존속해 왔다. 따라서 우리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로운 국민적 파벌조 등의 작가들은 잘 알려져 있지 만, 조총련 미술의 뿌리로 1959년에 설립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약 칭 문예동)에서 활약했던 허훈 백령 표세종 등은 '금기'의 작가로 남아 있 다. 대체로 1세대 작가들은 민족 분단 과 침에한 정치 상황, 교포 사회가 처 한 갈등과 부조리, 조국의 풍물과 풍 험 등을 구상 양식으로 그려냈으며, 2 세대 작가들은 일본 미술의 영향권에 흡수돼 모더니즘 미술의 다양한 양식 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70년대를 전후로 남북의 사상 대립이 첨예화되 면서 문예동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 을 걸어가는 작가들이 점차 늘어났다. 다른 이산지역과 마찬가지로 3, 4세 대 작가들로 갈수록 민족 정체성 문제 외 범개로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주목 하는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리 될 수 있는 인간과 조형의 제2
분당이 존속해 왔다. 따라서 무리와
미대물론기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적
파악을 등의 작가들은 잘 알리지 있지
만, 조형의 미술의 뿌리로 1959년에
형성된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약
칭 문예동)에서 활약했던 허훈 백령
표세종 등은 '금기'의 작가로 남아 있
다. 대체로 1세대 작가들은 민족 분단
과 힘에 한 정치 상황, 교포 사회가 처
한 고향과 부조리, 조국의 풍물과 풍
행 등을 구상 양식으로 그려냈으며, 2
세대 작가들은 일본 미술의 영향권에
속수돼 모더니즘 미술의 다양한 양식
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70년대를
전후로 남북의 사상 대립이 첨예화되
면서 문예동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
을 걸아가는 작가들이 점차 늘어났다.
다른 이산지역과 마찬가지로 3, 4세
대 작가들로 갈수록 민족 정체성 문제
와 별개로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주목
하는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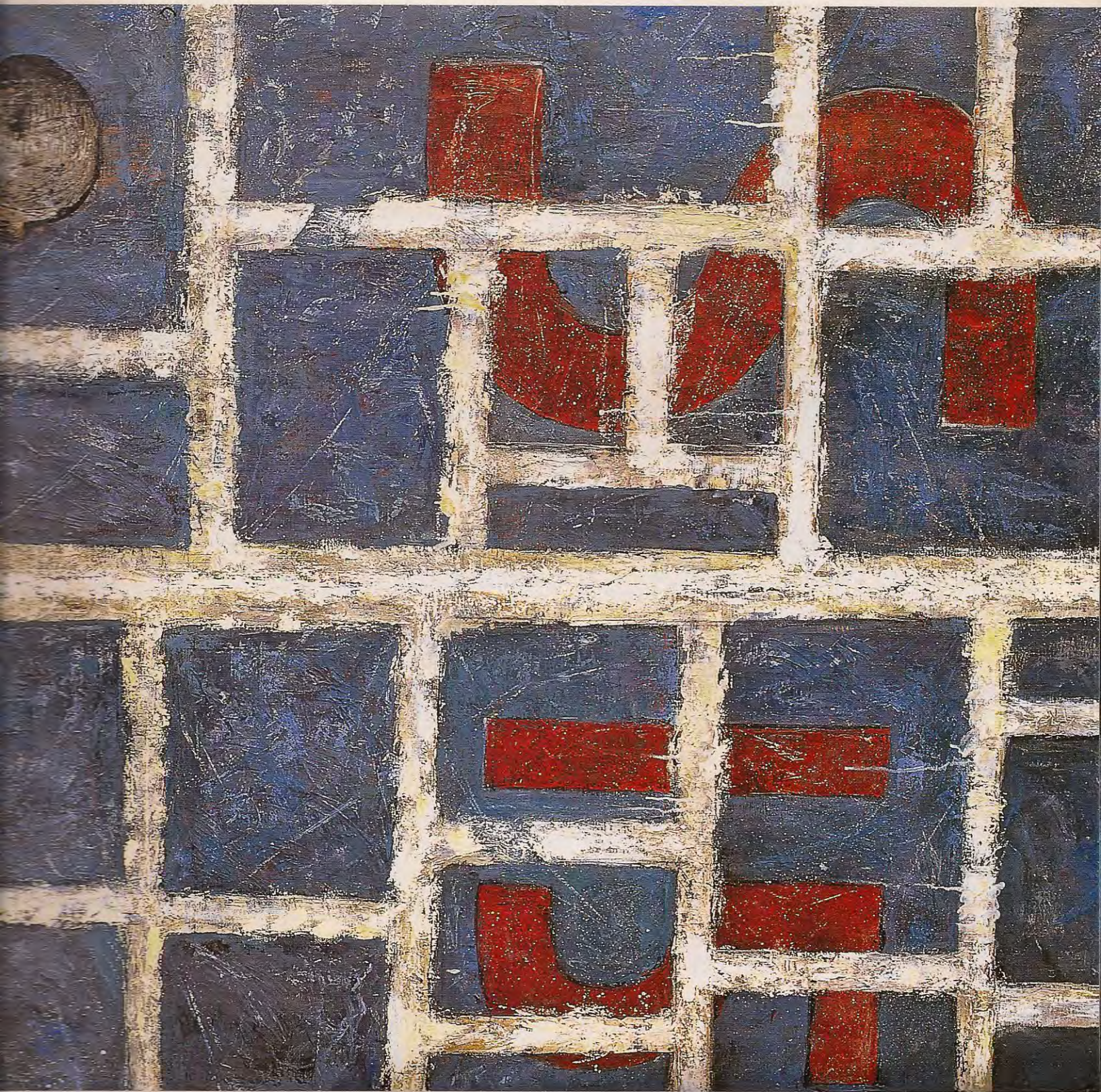


김 · 진화향 <전쟁의 낙오자> 캔버스에 유채

60×94cm 1960

전후에 진화향은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주제를 담은
작품도 많이 남겼다. 60년대 이후에는 종교적 주제로
불기 배제관음을 비롯한 불상을 즐겨 그렸다.
아예 · 송영옥 <절구> 캔버스에 유채 116.7×90cm 1974
이방인으로서는 남과 북 그 어디도 선택할 수 없는
재일교포의 특수한 삶을 절구의 몸짓으로 그려냈다.
하로시마 원폭 문제, 광주민중화운동 등 한국의 정치
주제를 다룬 작품을 남겼다.





1985, oil on canvas, 100 x 100 cm
The artist's work is characterized by a strong sense of rhythm and color contrast. The use of dark blue and red in a grid-like structure creates a powerful visual impact. The texture of the paint is a key element, adding to the overall complexity of the work.





위 · 채준 <열등 1엔20장> 캔버스에 유채

162.2 × 130.3cm 1999

정체 시시만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회화 작품에도 조극
뿐만 현실의 모습 등을 즐겨 담는다.

아래 왼쪽 · 백영 <각국의 기념> 캔버스에 유채

130 × 80cm 1961

아래 오른쪽 · 표세종 <학살> 캔버스에 유채

198 × 277cm 1960

왼쪽 페이지

조양규 <일배된 청교> 캔버스에 유채 162 × 130.5cm

1957

해방 직후 양대평당전, 자유미술전을 통해 미술학단에서
각광을 받았으나 61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신했다. 전후 일본 리얼리즘의 대표주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97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00년대의 미술' 전시회에서
 전시된 박수근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그의 화풍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위 · 광덕준 <무의미 9381> 캔버스에
 130 x 162cm 1993
 퍼포먼스 · 사진 · 비디오 · 관촬 · 드로잉
 장르의 작품을 펼쳐는 작가. 일본 미술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다.
 아래 · 김석출 <광주> 캔버스에 유채
 1981
 사회적 주제에 관심을 보이다가 북경에서
 추상의 이미지 결합으로 작가의 새로운
 작업으로 이행했다.





위 · 광덕준 <무의미 9381> 캔버스에 혼합재료
130×162cm 1993
퍼포먼스 · 사진 · 비디오 · 판화 ·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펼치는 작가. 일본 미술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다.
아래 · 김석출 <광주> 캔버스에 유채 336×194cm
1981
사회적 주제에 관심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구상과
추상의 이미지 결합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펼치는
작업으로 이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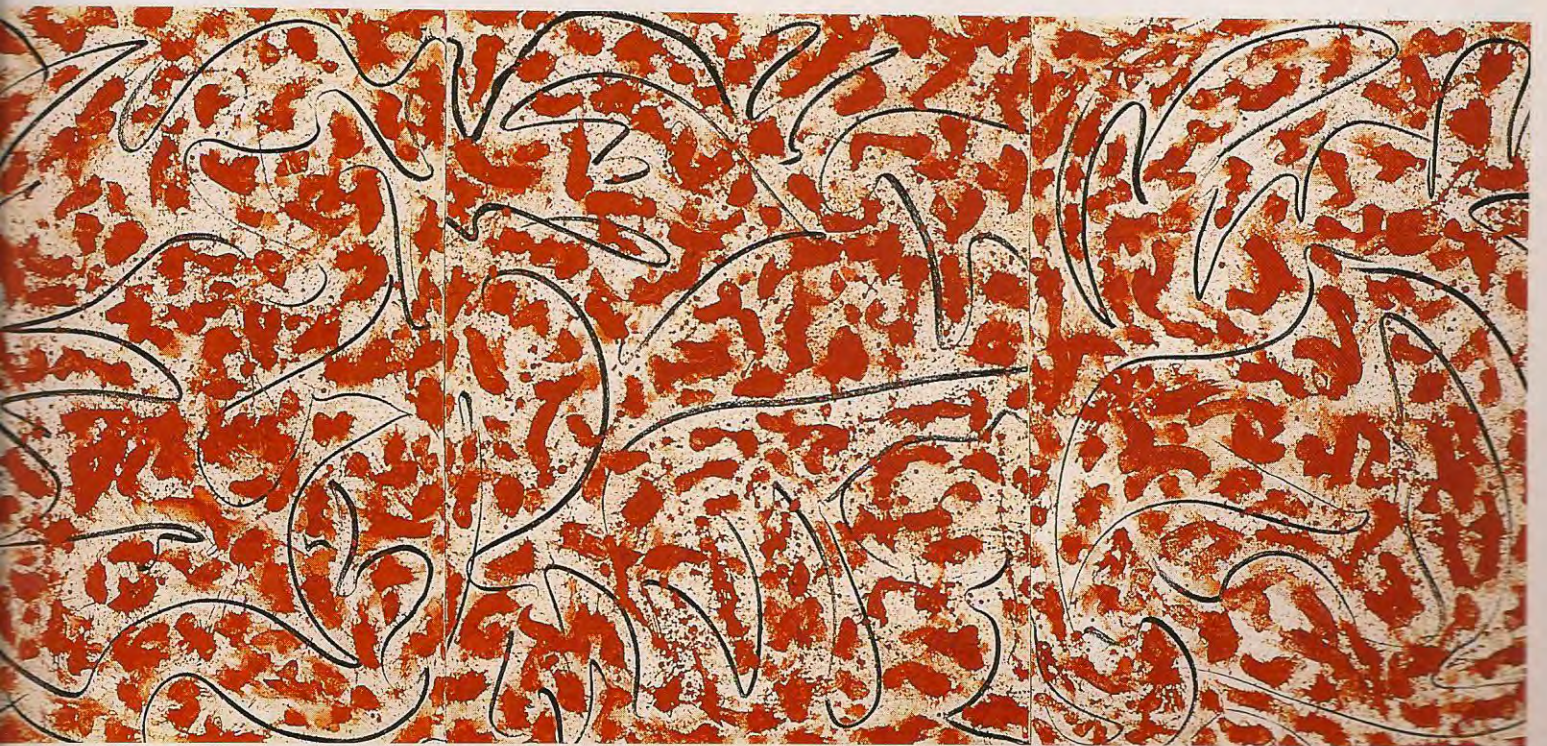
art in culture



February 2002



위 왼쪽 · 김선동 <인터베인> 염색된 천 · 캔버스에
연필과 아크릴릭 145.5×112.1cm 1985
위 오른쪽 · 문승근 <무제> 종이에 수채 1970년대
35세에 요절한 화가. 간결하고 명확한 조형어법의 판화,
회화 작품을 남겼다.
아래 · 손아유 <공간간격 AC97-02> 캔버스에 목탄과
아크릴릭 145.5×336cm 1997



Europe 유럽

1960년대 이후 유럽으로의 이민은 노동이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노동이민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광산 근로자와 간호원으로 시작된 독일 이민 러시아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유럽 미술 유행이 급증했던 것에 비하면 이민을 통해 정착한 미술인의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적었다. 따라서 '이산'이라는 일차적 의미의 디아스포라 개념에 적합한 이주자들은 극히 적었던 것이 특징이다. 한국인 출신 작가들의 그룹이나 단체 활동이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유럽의 한국인 작가들은 자신들이 속한 화단 주류의 미술 경향에 깊게 침윤돼 있었다. 그러나 화면 구성과 필법 등의 추상적 형식이나 기법 속에서 동양적 혹은 한국적 미의식을 감지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한국 전통 민속이나 설화 등 구상적 소재들을 채용하면서도 현대미술의 보편적 양식으로 이끌어 올린 작품도 있다. 자의견 타의견 무형의 정체성이 깔려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위 · 노은님 <무제> 종이에 아크릴릭 118×180cm 1990
아래 · 김정 <검정 고양이> 종이에 아크릴릭 181×233cm 1980
스물네 살에 독일로 간호 이민을 간 노은님은 함부르크 조형 미술대학에서 그림을 시작했다. 축약적인 묘사와 화면 구성, 대담한 붓 터치로 그려낸 고양이 · 물고기 · 사슴 · 토끼 · 새 등의 동물 그림은 고졸적이면서도 해학적인 동양 필법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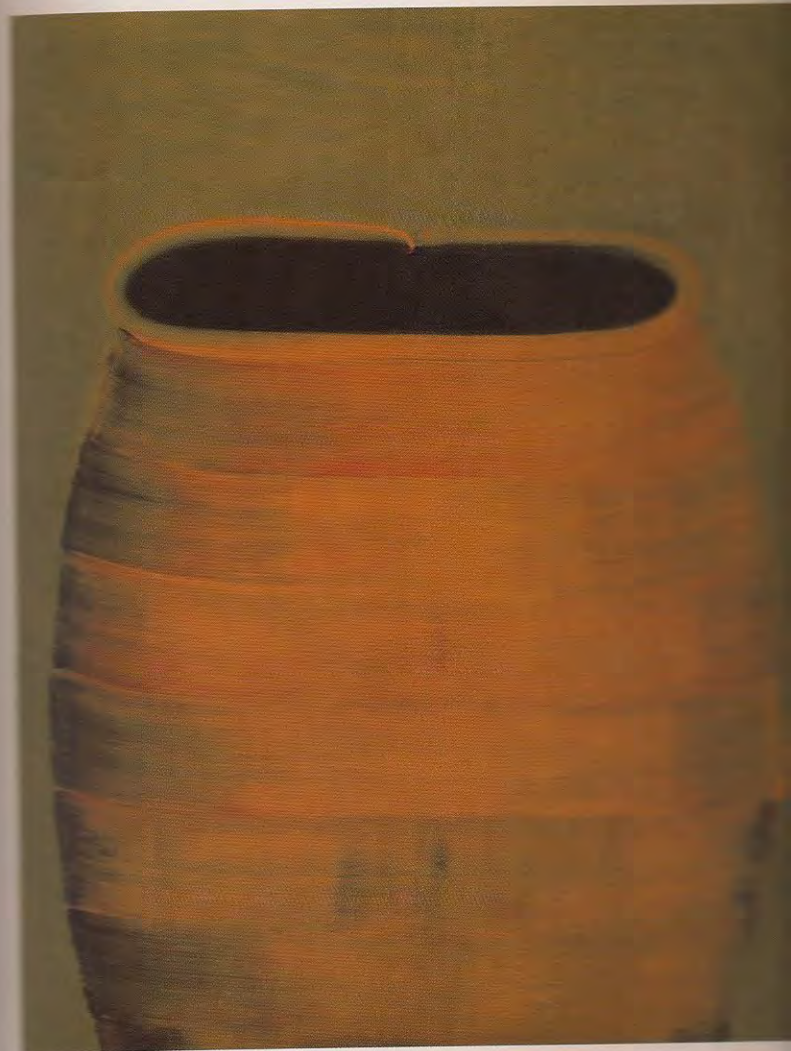


독수 아잘레인 <찾잔> 프레스코 18×25cm 1992
 아잘레인은 열살 때 독일로 이민, 뒤셀도르프 콘스트
 아카데미에서 신표현주의 거장 핑크의 지도를 받았다.
 예술의 격렬하고 표현적인 화풍과는 정반대로, 착색이
 엄밀한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하여 엄격한 구성의 정물을
 그려냈다.

작가 왼쪽 · 송현숙 <8회 I> 캔버스에 달걀 템페라
 170cm 1994

작가 오른쪽 · <8회 II> 캔버스에 달걀 템페라
 150cm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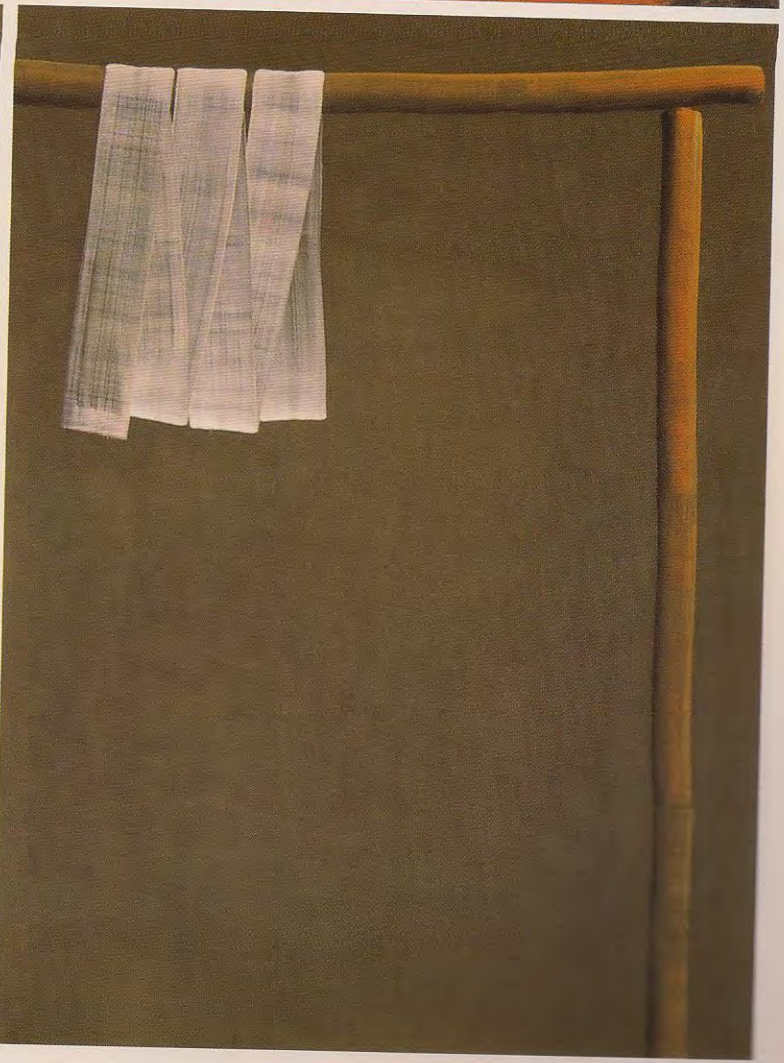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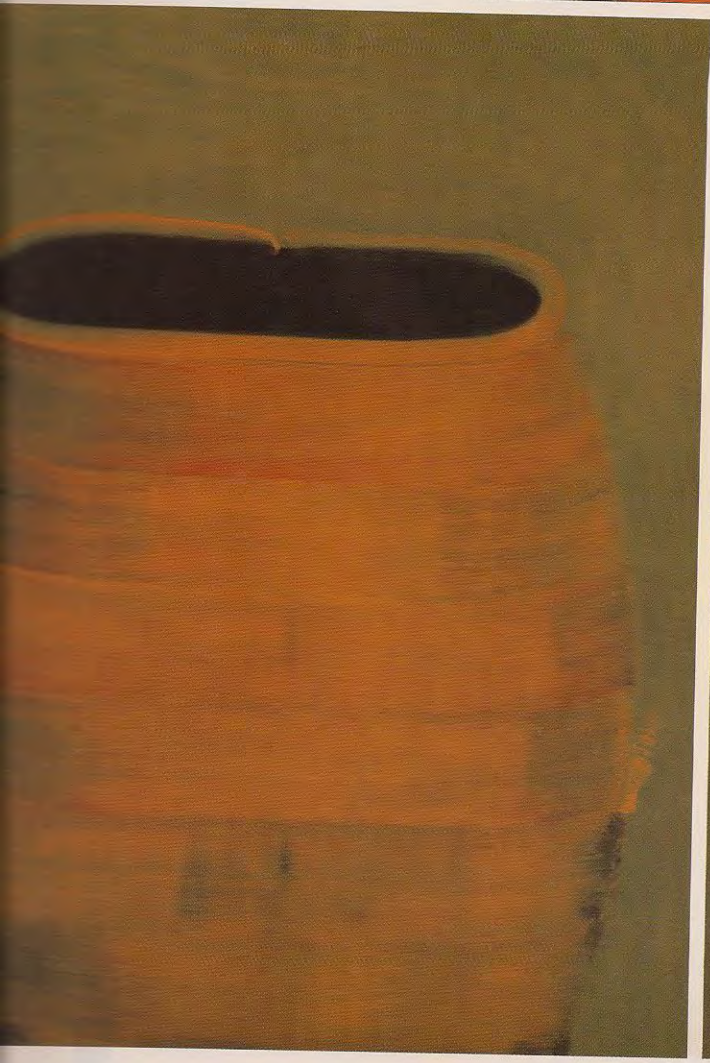
발레르크 조형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기둥이나
 불대, 고무신과 같은 의미심장한 대상들에 한국의
 색채 요소를 담고 있다. 단색조의 절제된 색채와
 엄밀한 표현에서 명상적인 작업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한 것은 프레스코 18×25cm 1992
 독일과 독일로 이민, 뒤셀도르프 콘스트
 인 프란츠의 거장 학교의 지도를 받았다.
 그의 표현적인 화풍과는 정반대로, 착색이
 큰 기법을 이용하여 엄격한 구성의 정물물

반죽 3화 1) 캔버스에 달걀 템페라
 1994
 3화 2) 캔버스에 달걀 템페라
 1994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기둥이나
 그 같은 의미심장한 대상들에 한국의
 담고 있다. 단색조의 절제된 색채와
 미학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U.S. 미국

1965년 한국인에 대한 쿼터를 2만 명으로 배정하는 새 이민법이 발표된 이후, 자율적인 미국 교가 트였다. 다양한 사회 계층들에서 노동이민이 급증했다.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하나의 지를 이루었지만, 다문화·다인종의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미국에서의 삶의 조건은 '한국인'의 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도록 했다. 1.5세대나 2세대에 속하는 김진수 민영순 최성호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국인의 태생적 조건과 미국의 성 조건 사이에서의 혼란이나 문화에 대한 정체성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끌어들었다. 라 리, 신경미, 민연희 등의 이민 3세대나 4세대 작가들은 세계 다른 어느 디아스포라 지역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최신 어법의 현대미술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단순히 정체성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문화간의 역학 구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으로 배정하는 새 이민법이 발표된 이후, 자율적인 미국 이민의 물
 노동이민이 급증했다.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하나의 지역 공동체
 바이블 게임과 같은 미국에서의 삶의 조건은 '한국인'이라는 동질
 1.5세대나 2세대에 속하는 김진수 민영순 최성호 같은 작가들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국인의 태생적 조건과 미국의 사회적 구
 대한 정체성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끌어들었다. 캐롤 김, 사
 1.5세대나 4세대 작가들은 세계 다른 어느 디아스포라 지역들보다 가장
 이들은 최신 어법의 현대미술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습득하여
 라 문화간의 역학 구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작품에 적극적으로



art in culture

위 · 김진수 <Tacit Transit> 설치 1993
 아래 · <Environment L>(부분) 설치 1989
 서울대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을
 시작한 김진수는 알리노이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현대의 스프링 구조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대한
 설치물은 버려진 것들-철망·전선관·부러진 가구·끈
 등으로 채워진 인체의 골격을 은유한다. 이를 통해
 기억·상실·비탄의 상처들을 치유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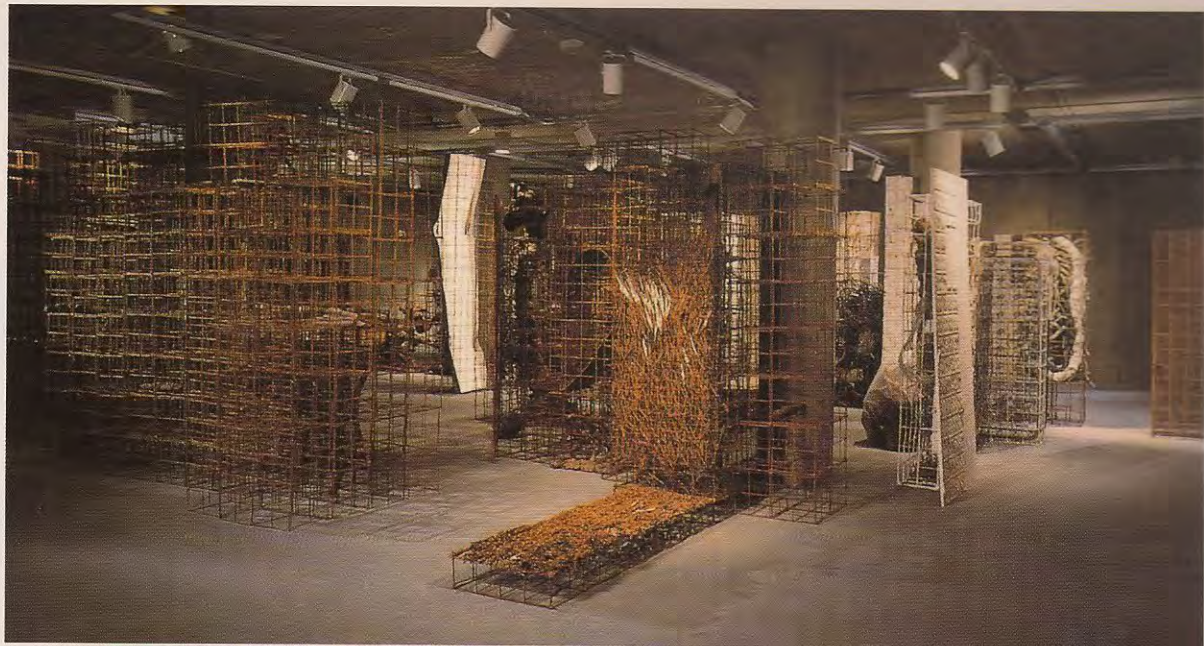
왼쪽 페이지
 민영순 <Ritual Labor of a Mechanical Bride>
 오디오 테이프와 혼합재료 72×36×168cm 1993
 민영순은 사진·설치·퍼포먼스·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사와 정치역사를 동시에 표현해
 낸다. 한국 여인의 수동적 태도나 DMZ와 같은 한국적
 상황, 정치적 투쟁의 장(場)으로서의 자신의 몸 등의
 소재를 작품 속에 녹여낸다.



February 2002

Fact Transit) 설치 1993
 nment L)(부분) 설치 1989
 책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을
 는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구조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대한
 것들 철망·전선관·부러진 가구·끈
 인체의 골격을 은유한다. 이를 통해
 탄의 상처들을 치유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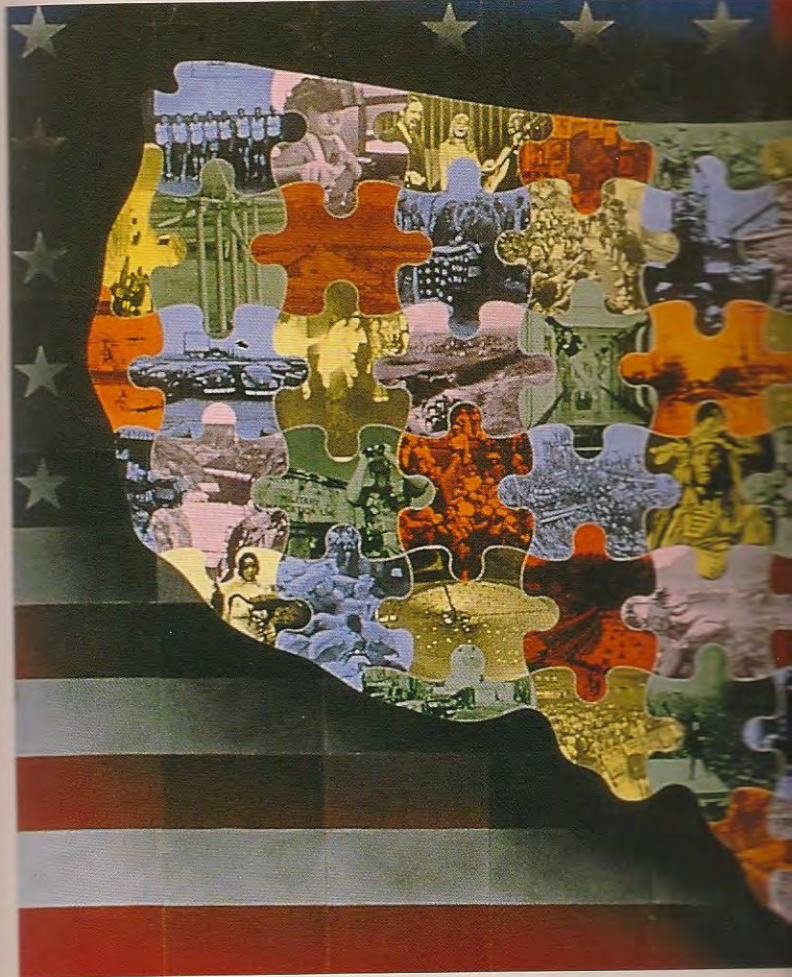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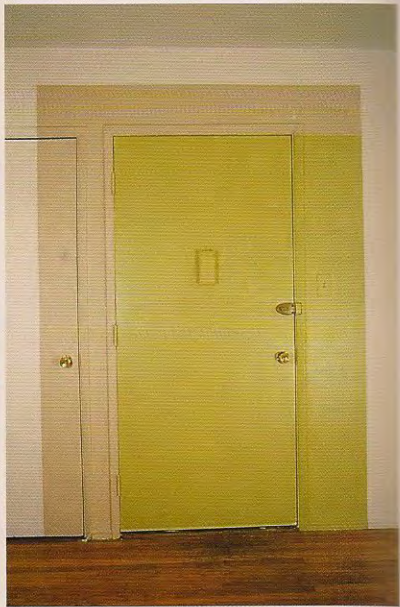
Labor of a Mechanical Bride)
 혼합재료 72×36×168cm 1993
 설치·퍼포먼스·비디오 등 다양한
 개인사와 정치역사를 동시에 표현해
 수동적 태도나 DMZ와 같은 한국적
 (장태)으로서의 자신의 몸 등의
 에 녹여낸다.





위 왼쪽 · 민연희 <Agent Orange> 벽과 엘리베이터에
 페인트와 에나멜 27×17×67cm 1997
 위 오른쪽 · <Hip: Don't Go> 벽에 페인트
 185×227.5cm 1996
 아래 · <Between the Sheets Detail> 벽과 창문에 페인트
 25×62×12cm 1996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연희는
 공간(surface)과 객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특히
 벽화(벽)나 직물(천) 등 공공 건물의 대형 유리에 부착된
 필드 작업(물론 건축·조경·색면·오브제들이 서로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대립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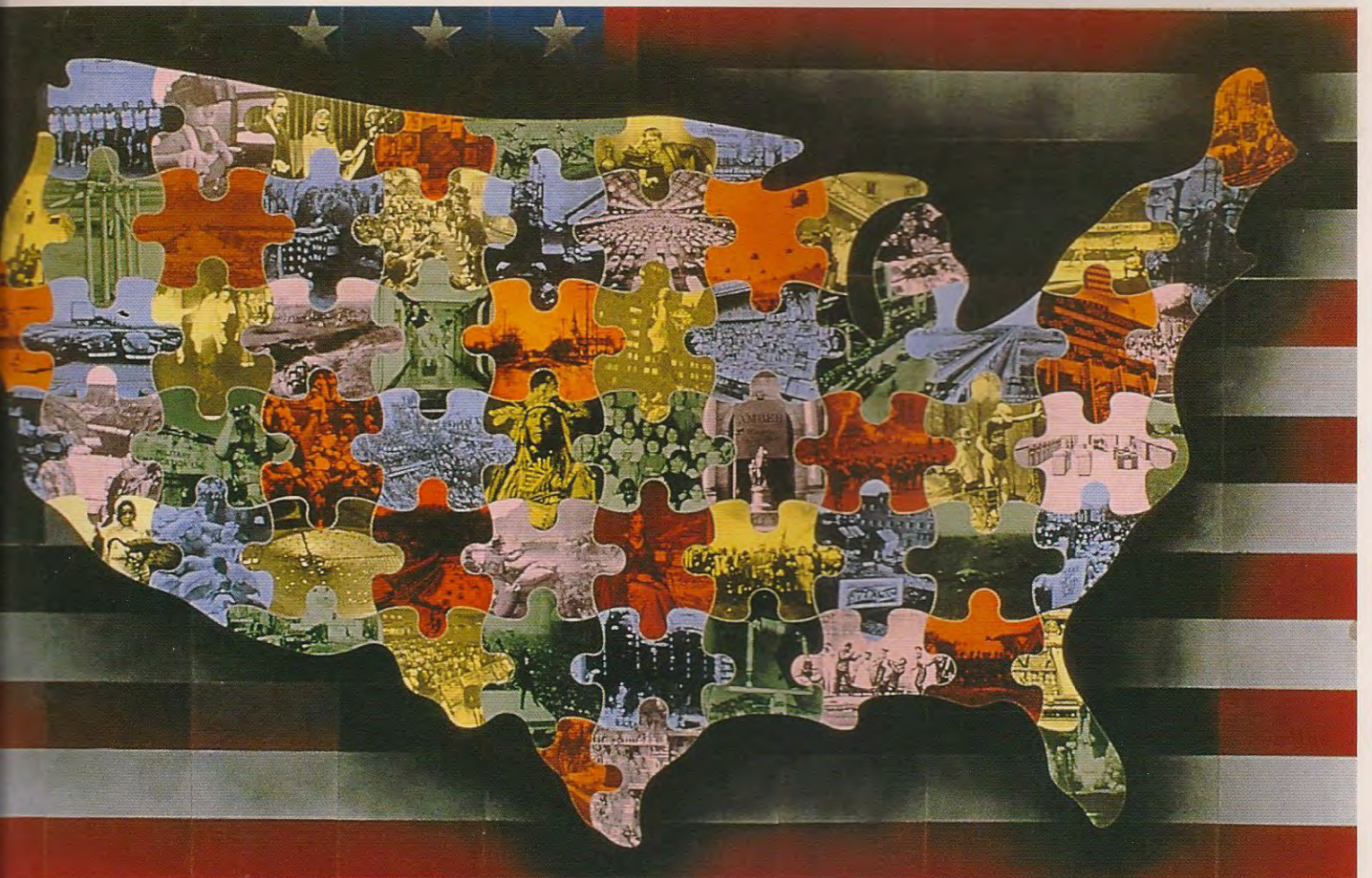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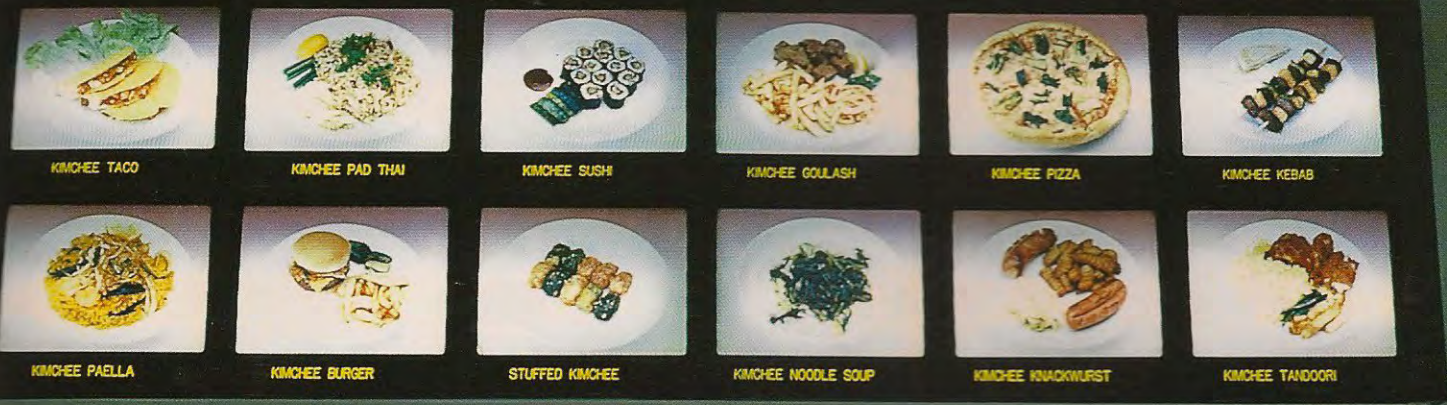


위 · 최성호 <메뉴>

혼합재료 70×240×15cm 1997

아래 · <나의 아메리카> 세라믹 타일 220×360cm 1996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정착했다. 이미 충분한 미술교육을 받고 갔던 최성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 이 안겨주는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었다. 이를 위해 메뉴판, 작업장갑, 소주병 등의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사용한다.



위 · 캐롤 킴 <내 생일에 사워하기>

95×34

아래 · <퀘도들> 설치 · 퍼포먼스 · 종이 비행기

300×270×900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캐롤 킴은 일관되게 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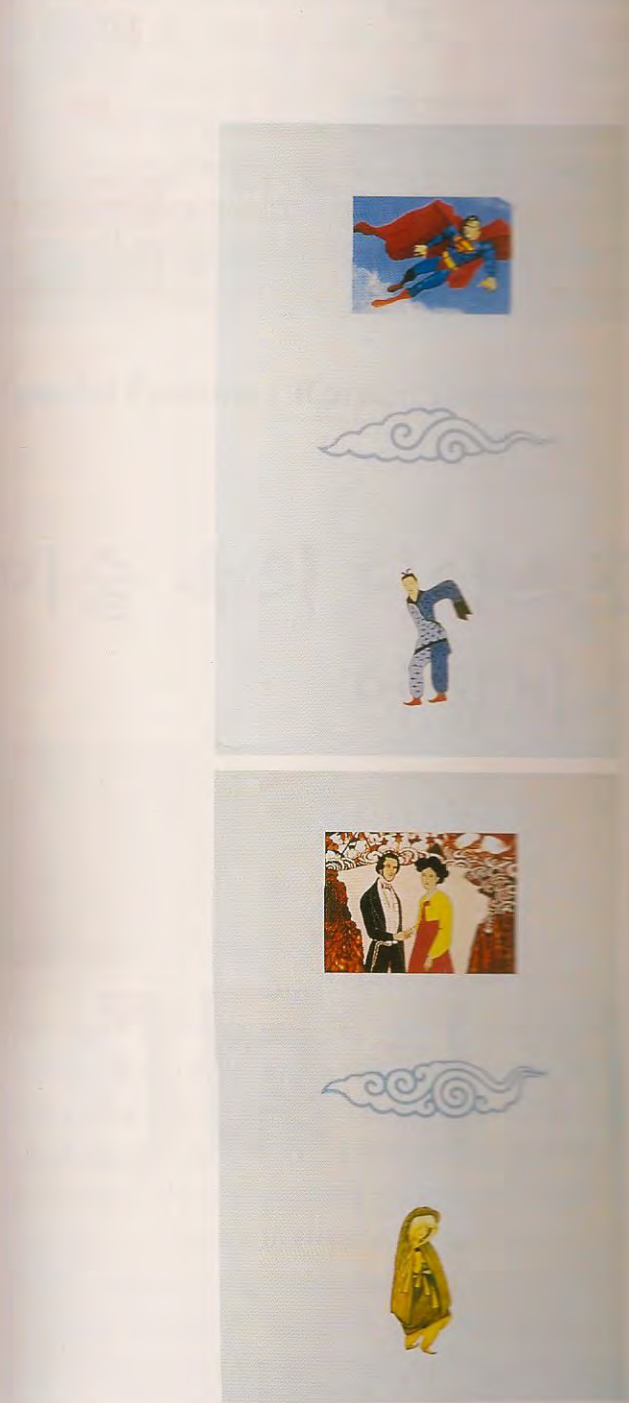


위 · 캐롤 킴 <내 생일에 사워하기...> 혼합재료
95×34cm 1995
아래 · <케도들> 설치 · 퍼포먼스 · 종이 비행기 글라인더
300×270×900cm 1996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캐롤 킴은 일관되게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art in culture

왼쪽 위 · <나의 영웅> 디지털 아이리스 프린트
27.5×55cm
왼쪽 아래 · <서울에서의 허니문> 아이리스 프린트 위에
수채 37×55cm
오른쪽 위 · <미디어 퍼센체/보그> 디지털 아이리스
프린트 31×47cm 1994
오른쪽 아래 · 사샤 리 · <아이콘: 엘리자베스> c-프린트
31.25×52.5cm 1997
사샤 리는 보그 · 플레이보이 · 엘리자베스
테일러 · 슈퍼맨 등의 대중문화 이미지를 디지털
작업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나 한국적인 것들과 합성한다.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과정' 이라고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코드를 문제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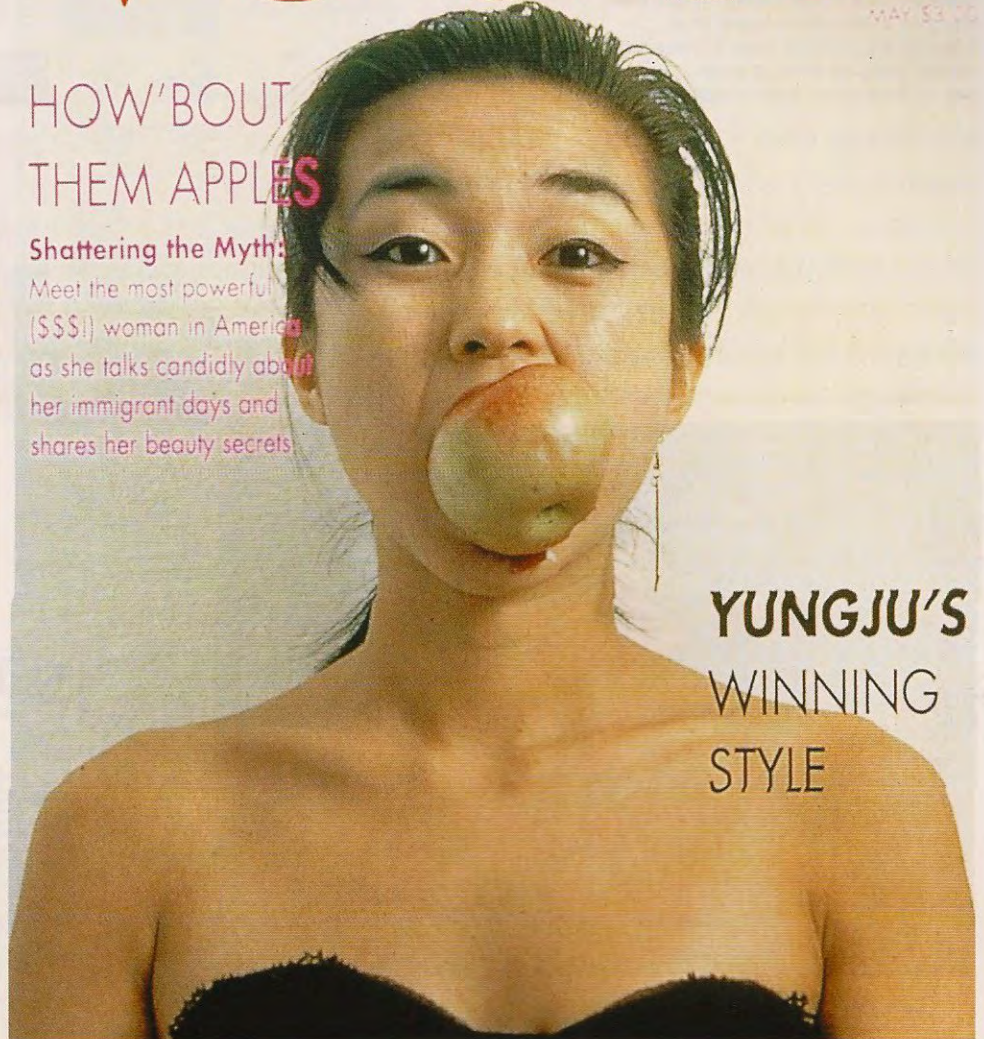
February 2002

VOGUE

MAY 53 00

HOW'ABOUT THEM APPLES

Shattering the Myth:
Meet the most powerful
(\$\$\$!) woman in America
as she talks candidly about
her immigrant days and
shares her beauty secrets



**YUNGJU'S
WINNING
STYLE**



*The eyes are the windows
of the soul*

위 · 찰리 조 (거대한 물건들) 종이 · 천

210x880cm(부분) 1997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난 찰리 조는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현재 시카고에서 작업하고 있다. 그는 철저하게 미국문화의 수혜를 받은 젊은 이민세대의 경험을 보여준다. 정체성의 문제에 진지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그 이전세대와는 달리 가볍고 경쾌한 터치를 보여준다.

가운데 · 신경미 (Kodori with Psalm) 혼합재료 1994
부산에서 태어나 스무 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신경미는 버클리에서 조소를 전공하면서 미술을 시작했다. 회투와 같은 한국적 소재를 이용하거나 성경을 캔드로 만들어내는 등 인간의 심리를 꼬집는 오브제들을 통해 전통적인 관념에 대해 풍자적으로 접근한다.

아래 · Self Help Books) 목판에 아크릴릭 1996

